

기출세포99
공무원국어

적중률 99%

주제별 기출 분석서

기출을 푸는 이유는, '경향 분석, 전략 학습, 단기 합격'에 있다.

14일 만에 끝낼 기출세포 99 국어정복의 찬스~!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0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 ④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절입니다.”에서의 ‘-세요’, ‘-습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2쪽, 43쪽, 98쪽, 422쪽, 424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도 쓴다. ‘제 말씀’에서 ‘말씀’은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말씀’이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로 쓴 예로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와 같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에서 ‘당신’은,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3인칭 대명사이다. 한편 ‘당신’은 2인칭 대명사로 ㉠ 청자를 가리키거나(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요?) ㉡ 부부 사이의 상대방을 높여 이르거나(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지요?) ㉢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거나(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를 때(뭘?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쓴다.
- ③ 화자나 청자가 다른 집단에 있다면 화자는 청자에게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라고 하지만 ‘나라’는 겸양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때에도 ‘우리나라’라고 쓴다. ‘저희 나라’는 잘못된 표현이다.
- ④ ‘-세요’, ‘-습니다’는, 주어와 밀접한 대상을 통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높임이지만, “그건 만 원이세요.”, “품절입니다.”라는 표현처럼 너무 지나치게 ‘-시-’를 붙여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건 만 원입니다.’, ‘품절입니다.’로 쓰는 게 옳바르다.

02

밑줄 친 부분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가직 7급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28쪽, 36쪽, 75쪽, 79쪽, 80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에서 ‘보기’의 ‘-기’는, ‘보기 싫다, 보기 좋다’처럼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이다. ㉠의 예가 아니다. 한편 ‘보기를 들다.’에서 ‘보기’의 ‘-기’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즉, 접미사 ‘-기’는 동사 ‘보다’를 명사 ‘보기’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에서 ‘정답게’의 ‘-답-’은, 명사 ‘정(情)’ 뒤에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의 예에 해당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답다’가 접미사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접미사’로, 그중 ‘-답-’만 접미사이며, ‘-다’는 어미이다. 즉 ‘-답-’이 어근 ‘정’에 결합하여 ‘정답-’과 같은 새로운 어간을 만들고 이 어간 전체가 ‘정답게’, ‘정답고’ ‘정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에서 ‘크기’의 ‘-기’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이다. ㉠의 예가 아니다. 한편 ‘옥수수 알의 크기가 좋다.’에서 ‘크기’의 ‘-기’는, 용언 ‘크다’의 어간 ‘크-’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에서 ‘낚시질’의 ‘-질’은, 명사 ‘낚시’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즉, 파생어 ‘낚시질’은 명사 ‘낚시’의 의미를 더하지만 그 품사는 여전히 명사이다. 품사를 바꾼 예가 아니다. 따라서 ㉠의 예가 아니다.

0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애리조나주 북부의 나바호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을 걸쳐 서로의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나바호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즉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나바호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바호인은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기지. 그런데 만약 나바호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에 플래그스테프에서 경주를 온통 휩쓸었던 내 말을 기억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럼, 기억하고말고.’ 하면서 그 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끄덕인다 해도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 버릴 것이네. 그러나 만약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먹은 말 알지? 영양실조에다 안짱다리인 저 늙은 말을 해진 안장과 함께 자네에게 줄게. 저놈을 타고 가게나.’ 하고 말하면, 그 나바호인은 희색이 만연하여 악수를 청한 다음 자신의 새 말에 올라타서 사라질 것이네.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 ①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 ②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 ④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6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추론’이라고 함은, 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추론적 이해에서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적절히 생략하거나 요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숨어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글에 숨은 의미 또는 생략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앞에 다루어졌을 내용이나 뒤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해 보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숨어 있는 내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통해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주어진 정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내용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략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글의 주제 또는 문맥의 흐름에 견주어 글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었는지를 알아낸 다음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비추어 생략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제시문에서 중심문장은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

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이다. 나바호인에게는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는 맥락에서 선택지를 살펴보면 그 추론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 ①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는 것은 나바호인의 눈앞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다. 그들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을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①은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 ②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바호인의 도덕이나 미덕의 문제이지, 미래에 대하여 현실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② 역시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 ③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나바호인이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을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은 적절한 추론이다.
- ④ 나바호인이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긴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고 함을 추론할 수는 없다. 경주를 휩쓸었던 말도 ‘다음에’ 준다면 낙담하고, 비루먹고 늙은 말도 ‘지금 여기에서’ 준다면 만면희색하는 나바호인의 시간 개념에 비추어 볼 때, ④는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0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019 국가직 7급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자는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으러 나오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④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162쪽, 46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제시문의 중심문장은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이다. 주어진 글에서는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제시문의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한다는 대목에서 주어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제시문의 ‘담화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 측면에서 “지금 뭐하니?”라는 엄마의 말이 제안의 기능, 요청의 기능,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③이 정답이다.

④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이나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라는 대목을 통해 ‘담화 상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은 주어진 글에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다.

05

㉠~㉡에 해당하는 예를 빠르게 연결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경음화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	㉣
①	잡고	담고	갈 곳	하늘소
②	받고	앞더라	발전	물동이
③	놓습니다	삶더라	열 군데	절정
④	먹고	껴안더라	어찌할 바	결석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372쪽, 37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표준발음법 제23항 — 잡고[잡꼬], 받고[받꼬], 먹고[먹꼬]

㉠ 표준발음법 제24항 — 담고[담꼬], 앞더라[안떠라], 삶더라[삼:떠라], 껴안더라[껴안떠라]

㉢ 표준발음법 제27항 — 갈 곳[갈꼐], 어찌할 바[어찌할빠]

㉣ 표준발음법 제26항 — 발전(發展)[발쩐], 절정(絶頂)[절쩍], 결석(缺席)[결씩]

① 잡고[잡꼬](㉠), 담고[담꼬](㉠), 갈 곳[갈꼐](㉢), 하늘소[하늘쏘](표준발음법 제28항)

‘하늘소’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표준발음법 제2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늘+소’의 합성어로, 뒤 단어의 첫소리 ‘ㅅ’을 된소리 [ㅆ]으로 발음하는 표준발음법 제28항을 적용하여 [하늘쏘]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② 받고[받꼬](㉠), 앞더라[안떠라](㉡), 발전(發展)[발쩐](㉢), 물동이[물똥이](표준발음법 제28항)

‘발전(發展)’은, 한자어로 ‘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ㅆ]으로 발음하는 표준발음법 제26항을 적용하여 [발쩐]으로 발음한다. ㉣의 예가 아니다.

‘물동이’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표준발음법 제2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동이’의 합성어로, 뒤 단어의 첫소리 ‘ㄷ’을 된소리 [댕]으로 발음하는 표준발음법 제28항을 적용하여 [물똥이]로 발음한다.

③ 놓습니다[노쑼니다](표준발음법 제12항 2.), 삶더라[삼:떠라](㉡), 열 군데[열:군데](㉢×), 절정(絶頂)[절쩍](㉣)

‘놓습니다’는, ‘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는 표준발음법 제12항 2.를 적용하여 [노쑼니다]로 발음하며, 여기에 받침 ‘ㅂ’은 ‘ㄴ’ 앞에서 [ㅁ]으로 발음한다는 표준발음법 제18항을 적용하여 [노쑼니다]로 발음한다. ㉠의 예가 아니다.

표준발음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2. ‘ㅎ(ᄃᆞ, ᄃᆡ)’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ㅌ, ㅎ, ㅍ, ㅊ, ㅍ, ㅍ)’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열 군데’는, ‘관형사 + 의존명사’의 구문이며 [열:군데]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27항을 적용하여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 연결되는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의 예가 아니다.

④ 먹고[먹꼬](㉠), 껴안더라[껴안떠라](㉡), 어찌할 바[어찌할빠](㉢), 결석(缺席)[결씩](㉣)

‘먹고’는, ‘ㄱ’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한다는 표준발음법 제23항을 적용하여 [먹꼬]로 발음한다. ㉠의 예이다.

‘껴안더라’는,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 [댕]으로 발음한다는 표준발음법 제24항을 적용하여 [껴안떠라]로 발음한다. ㉡의 예이다.

‘어찌할 바’는, 관형사형 어미 ‘-ㄴ’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08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이끄는 대로 따라갈밖에.
- ② 용수야, 5년만인데 한잔해야지.
- ③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텐데.
- ④ 태권도에서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쪽, 48쪽, 49쪽, 284쪽, 288쪽, 292쪽, 296쪽, 297쪽, 298쪽, 415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이끄는 대로'에서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반면에 '대로'가 조사일 때에는 '그 상태로, 각각'의 뜻으로 '당신V뜻대로', '너는V너대로'처럼 붙여 쓴다. 한편 '따라갈밖에'에서 '-르밖에'는, '-르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띄어쓰기는 '이끄는V대로V따라갈밖에.'와 같다.
- ② '5년만인데'에서 '만'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만'이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하나만 안다.', '그것만 못하다.'처럼 붙여 쓴다. 한편 '한잔해야지'는, '간단하게 한 차례 차나 술 따위를 마시다.'의 뜻을 지닌 동사 '한잔하다'의 활용이므로 그 띄어쓰기가 맞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띄어쓰기는 '용수야,V5년V만인데V한잔해야지.'와 같다.
- ③ '할텐데'에서 '터'는, 어미 '-르' 뒤에 쓰여 '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할V텐데'와 같이 앞말에 띄어 쓴다. '텐데'는, 의존명사 '터'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터이다'를 '테다'로 줄여 쓴 것처럼 '터인데'를 줄인 말이다. 또한 '잘돼야'는, 동사 '잘되다'의 어간 '잘되-'에 어미 '-어야'가 붙은 '잘되어야'를 줄여 쓴 표현이다. '잘V돼야'처럼 띄어 쓰지 않는다. 한편 '오늘부터는'에서 '부터'는, '시작'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한글맞춤법 제41항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띄어쓰기는 '일이V오늘부터는V잘돼야V할V텐데.'와 같다.
- ④ '태권도에서만큼은'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태권도에서만큼은'처럼 앞말에 붙여 써야 맞다. 그러나 '만큼'이, '의존명사'일 때에는 '있을V만큼만'의 예처럼 띄어 쓴다. 한편 '낼V거야'에서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거'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을 때에는 '거다'가 되며, 주격조사 '-이'가 붙을 때에는 '게'로 그 형태가 바뀐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띄어쓰기는 '태권도에서만큼은V발군의V실력을V낼V거야.'와 같다.

09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늘 고생이다. (→ 붓다)
- ② 개울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안 보인다. (→ 불다)
- ③ 은행에 부은 적금만도 벌써 천만 원이다. (→ 붓다)
- ④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통통 불었다. (→ 분다)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68쪽, 259쪽, 260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얼굴이 부어서'에서 '부어서'는, '붓- + -어서'로 분석되며, 기본형은 '붓다'이다. '붓다'는,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를 뜻하는 동사이며, 어간의 끝 'ㅅ'이 어미의 모음 앞에서 줄어질 적에 '부어서, 부으니, 부었다'처럼 준 대로 적는, 'ㅅ'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② '개울물이 불어서'에서 '불어서'는, '붙- + -어서'로 분석되며, 기본형은 '붙다'이다. '붙다'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붙다'는,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를 뜻하는 동사이며, 어간의 끝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뀔 적에 '불어서, 불었다'처럼 바뀐 대로 적는, 'ㄷ'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③ '은행에 부은 적금'에서 '부은'은, '붓- + -은'으로 분석되며, 기본형은 '붓다'이다. '붓다'는, '붙임금, 이자, 갚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를 뜻하는 동사이며, '부어서, 부으니, 부은, 부었다'처럼 어간의 끝 'ㅅ'이 어미의 모음 앞에서 줄어질 적에 준 대로 적는, 'ㅅ'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④ '손과 발이 통통 불었다'에서 '불었다'는, '붙- + -었다'로 분석되며, 기본형은 '붙다'이다. '붙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를 뜻하는 동사이며, 어간의 끝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뀔 적에 '불어서, 불었다'처럼 바뀐 대로 적는, 'ㄷ'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10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 ①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 ② 신제품을 선봬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주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안속터군요.
- ④ 그 발가숭이 몸통이가 위로 번쩍 쳐들렸다가 물속에 텀뎡 쳐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62쪽, 65쪽, 279쪽, 280쪽, 317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있으매'는, '있다'의 어간 '있-'에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나 근

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매'를 결합한 형태이며, 단어의 맞춤법이 옳다. '있음'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섰어'는, '섰어'의 준말 '섰'의 어간 '섰-'와 어미 '-었-' + '-어'를 결합한 '섰어'로 고쳐 적어야 맞다. 이때 어간 모음 '이' 뒤에 '-어'가 어울려 '내'로 줄어드는 '섰어'로 적을 수 있다.

③ 한글맞춤법 제40항 [붙임 2]에 따르면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이때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인데,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비]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는다. 예를 들어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와 '회상하건대' → '회상건대'를 구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야속하다'도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이므로 '야속다'로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야속터'는, '야속하- + -터'의 결합에서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이므로 '야속터'로 고쳐 적는 것이 맞다.

④ '물속에 텀벙 처박히는'에서 '처박히는'은, '처박다'의 피동형으로 '처박음을 당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처박히다'의 활용으로 '처박히는'으로 고쳐 적어야 맞다. 한편 '처박다'의 '처-'는, '마구, 함부로, 많이'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처먹다, 처바르다, 처지다, 처대다, 처박히다.'와 같이 쓴다.

11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기자: _____

작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 아무리 허구적 장르라 해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비로소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하기에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했지요. 전집에 실린 「○○기행」, 「○○를 찾아서」 같은 단편들도 거의 취재를 통해서 얻어 낸 자료를 가지고 쓴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작품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작가 수업에도 보탬이 됐고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 ① 선생님은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요?
- ②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③ 선생님의 작품 중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인지요?
- ④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6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주어진 제시문은 인터뷰 글이다. 작가의 답변에서 기자의 질문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우선 작가의 답변을 보면 그 중심내

용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 답변을 이끌어낼 만한 기자의 질문은 '취재의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라고 작가에게 기자가 질문하는 것이 맞다. ④가 정답이다.

12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사람은 일곱 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온통 한 껍데기의 피고름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음탕한 욕심을 채울 줄도 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성날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짓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 ①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 ②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 ③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④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곧 글의 주제이다.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중심내용을 첫 문장과 끝 문장에 담고 있다. 첫 문장의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과, 끝 문장의 "(본능에 따르니)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귀하다 할 만한 마음과 이치를 제하지 않도록 해서 (본능에 따르는) 짐승은 되지 말자.'일 것이다. 글을 요약하면 '사람은 몸과 마음을 지녔다. 마음을 빼고 나면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치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지 말라.'이다. 글쓴이는 '마음으로 본능을 이겨내며 살아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글의 주장을 선택지에서 찾으면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莊子)도 소년(少年)은 대년(大年)을 못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 백 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 하여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잡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우리의 총명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②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주어진 글을 비판, 추론,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즉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이다.

① 두 번째 문단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말은 ‘박학다식, 박람강기’이다. ‘박학다식(博學多識)’은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음을 뜻하며, ‘박람강기(博覽強記)’는 여러 가지의 책을 널리 많이 읽고 기억을 잘함을 뜻한다. 따라서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어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첫 번째 문단의 “20대의 체험은 ~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 그러나 체험은 ~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라는 대목을 보면 20대가 70대보다 독서를 통해 더 많은 체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박학다식, 박람강기가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잡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보다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을 읽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②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어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다.

③ 첫 번째 문단의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 백 년을 살 것인가.”라는 대목에서 인간의 체험에는 그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라는 대목에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는 주어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두 번째 문단의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대목을 보면 ‘일생을 읽어도 부족할 만큼 책이 많다. 그 걱정을 하지 말라. 내게 꼭 필요한 서적은 몇 권 되지 않는다. 그것부터 읽어라.’라는 사실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는 주어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 국가직 7급

㉠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

㉡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을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그는 꺾고 돌려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돌아 이쪽을 보았다.

㉢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칙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

【보기】

- ㄱ. ㉠ :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 ㄴ. ㉡ : ‘나’의 말을 ‘그’가 곧이듣지 않으려고 한다.
- ㄷ. ㉢ :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51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윤홍길의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977)는, 경기도 성남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고등학교 교사인 ‘나’는 방 하나를

권 씨 가족에게 세를 놓았는데, 권 씨는 여러 컬레의 구두를 공들여 닦아 신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던 '나'는 잘못을 깨닫고 권 씨 아내를 수술받게 도와주었다. 이를 모르던 권 씨는 그날 밤 칼을 들고 '나'의 방에 들어왔다가 들키자 사라져버린다. 다음날 아침 '나'는 권 씨의 '아홉 컬레의 구두'를 발견한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제시문은 권 씨가 칼을 들고 '나'의 방에 들어왔다가 들키자 사라져버리는 장면이다. 권 씨와 '나'가 주고받는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ㄱ. ㉔는 '나'가 권 씨에게 하는 말이다. '나'가 권 씨 아내를 수술받게 도와주었다는 제시문 밖의 줄거리를 알았다면 ㉔의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을 '나'로 쉽게 대치하여 '희망'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줄거리를 알지 못했다 해도,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털어 주었는지?"라는 말에는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ㄱ.은 옳다.

ㄴ. ㉔는 '나'가 말한 ㉔에 대한 권 씨의 말이다. 제시문 밖의 줄거리를 알면 권 씨가 수술비를 빌리고자 했던 '나'에게서 거절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권 씨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줄거리를 알지 못했다 해도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는 말에서 권 씨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㉔ : '나'의 말을 '그'가 곧이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한 <보기> ㄴ.은 옳다.

ㄷ. ㉔는 권 씨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라며 '그'의 자괴감을 담은 말에는,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위'이지만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라는 대목에서 '문간방에 사는 누구'라고 밝히는 것 같은 순간, 무너지는 자존감 때문에 표현한 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㉔를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리하면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ㄱ.과 ㄴ.이다.

15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온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보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숨바꼭질 하는 아이들이 꼭꼭 숨어 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선묘에 의지해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동양 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상의 원리로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해 온 역사가 시사하듯 물리적인 빛과 그림자를 그리지는 않았어도 그 조화와 원리에 대한 관념은 화포에 진하게 물들어 있다. 사실의 묘사보다 정신의 표현을 중시한 까닭에 동양 회화에서 빛과 그림자는 이처럼 정신의 현상으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이 어렵듯이 시도되는데, 이는 북경으로부터 명암법, 원근법 등에 기초한 서양 화법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량의 「견도(犬圖)」, 이희영의 「견도(犬圖)」 등 일부 화인들의 그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①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 ②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 유형에서는 주어진 글에만 의존하고 불필요한 추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사전 지식과 연관을 지어 글을 이해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부정발문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대한 접근법이 '제시문'보다 '선택지'부터 풀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먼저 선택지마다 중심 어구를 굵게 표시했다.

- ①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 ②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부정발문이므로 위 선택지 넷 중 셋은 옳다. 굵게 표시한 중심 어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동양 회화** ≠ **사실성**
- ② **명암** = **실재감**

③ 다른 명암법

④ 동양 회화 ≠ 명암 표현

논리적으로 ①②④가 일관성이 있다. '② 명암 = 실재감'인데 '① 동양 회화 ≠ 사실성'이니까 '④ 동양 회화 ≠ 명암 표현'이다. 명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있다. 명암법이 '다르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③ 다른 명암법'을 들고 있어서 선택지 ①②④와는 일관성이 없다. ③을 답으로 찍어도 될 법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선택지에서 찾은 중심 어구를 기억하고 제시문을 읽자는 것이니까, 제시문도 문단별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양에는 명암법이 없다는 것이 흥미롭다. / 김홍도 「씨름」에도 그림자는 없다. 선묘에 의지하며 명암을 외면한다. 사실성이나 실재감을 높이는 명암법은 정신성을 극대화하는 동양 회화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동양 회화에서 명암의 관념은 정신의 현상으로 녹아 있다. / 그럼에도 조선 후기 명암법이 시도되었다. 김두량의 「견도(犬圖)」, 이희영의 「견도(犬圖)」 등이 그렇다.”

선택지의 중심 어구를 기억하면서 제시문을 읽으면, 훨씬 잘 읽힐 것이다. 요약도 수월했을 것이다. 여기에 선택지의 중심 어구를 대입시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동양에는 명암법이 없다(④)는 것이 흥미롭다. / 김홍도 「씨름」에도 그림자는 없다(③). 선묘에 의지하며 명암을 외면한다. 사실성이나 실재감을 높이는 명암법(②)은 정신성을 극대화하는 동양 회화(①)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동양 회화에서 명암의 관념은 정신의 현상으로 녹아 있다. / 그럼에도 조선 후기 명암법이 시도되었다. 김두량의 「견도(犬圖)」(③), 이희영의 「견도(犬圖)」 등이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였더니, 선택지 ①②④는 제시문 내용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③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함은, 김홍도 「씨름」에는 명암법이 없는 것이고 김두량의 「견도(犬圖)」에는 명암법이 있는 것이지, 서로 다른 명암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므로 글의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

16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에 사람 되어 진충보국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 다세.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종여일 동심하세.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
집을 각기 흥하려면 나라 먼저 보전하세.
우리나라 보전하기 자나 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해 죽는 죽음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가안락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 ①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 ②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
- ③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
-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507, 53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주어진 작품은 갑오개혁(1894) 이후의 개화가사로,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가」(최돈성)이다. 1896년 ‘건양(建陽)’ 연호를 쓰는 자주독립을 기뻐하면서,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며 부녀를 경대하고 자식을 교육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다.

- ① 독자가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부녀를 공경하여 접대하는 ‘부녀 경대(敬待)’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이다.
- ② 독자가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가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라고 반응한 것은 작품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 ③ 독자가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국태평(國太平) 가안락(家安樂)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가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라고 반응한 것은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 ④ 독자가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작품 어느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2019 국가직 7급

팰렘시스트(palimpsest)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 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팰렘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물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당시 주거들은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변(水邊)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과도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

- ① 팰렘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을 말한다.
- ②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
-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 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팰렘시스트의 예이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주어진 문제에서는, 부정적 발문 “알 수 없는 것은?”에 대한 접근법에 따라 ‘선택지’부터 보면서 선택지마다 중심 어구를 표시하면, 팰렘시스트의 정의(① 양피지를 재활용을 하면서 빚어진 현상)를 ‘건축’에 원용(② 하천, 간선도로)하여 그 예시(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예시의 결과가 빚어진 원인(③)을 사실적으로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다. 선택지의 중심 어구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유형이다.

- ① 이 선택지는 제시문의 첫째 문단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

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면서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데에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 선택지는 제시문의 셋째 문단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라는 데에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 선택지는 둘째 문단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시문의 셋째 문단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라는 대목과 관련한다. 따라서 ‘필연적’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이다.

④ 이 선택지는 첫째 문단 “건축에서는 이러한 팰렘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라는 대목과, 둘째 문단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2019 국가직 7급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포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텅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갈진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 ① 수양산(首陽山) 바라 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호는것가.

-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님 짜해 닛드니.
- ②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돌 도다 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르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③ 내 언제 무신(無信)하야 님을 언제 속엿관디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온 뜻지 전혀 업다.
 추풍(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난들 어이 하리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ㅣ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호노라.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520쪽, 540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시적 화자’는 시에 나타난 주인공이다. 시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서정적 자아, 시적 자아’이다. 시인 자신이 아니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면 ‘1인칭의 시’, 그렇지 않으면 ‘3인칭의 시’라고 한다. 주어진 김영랑의 시 「독을 차고」는 시적 화자인 ‘나’가 겉으로 드러난 ‘1인칭의 시’이다. 이 시에서 ‘나’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로부터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아는 것인데, 주어진 문제는 이를 묻고 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내적 반응인 ‘시적 화자의 정서’에는 소망, 그리움, 동경, 여유, 풍류 등과 같은 밝고 긍정적인 정서가 있는가 하면, 절망, 고독, 한(恨), 허무, 방황, 체념 등과 같은 어둡고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 주어진 시에서는 ‘나’가 일제강점기 현실을 바라보며 ‘나’는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저항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에서 ‘독(毒)’과 같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를 통한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순결의 의지와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과 같은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는 저항의 의지를 시적 화자의 정서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① 중국 주나라의 충신 백이숙제를 원망하면서, 단종을 내쫓은 세조의 왕위 찬탈 앞에서 단종을 향한 자신의 충의와 절개를 굳게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아낸 ‘성삼문’(1418~1456)의 시조이다. ‘굳은 절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주어진 시 ‘김영랑, 「독을 차고」’와 가장 유사하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원망하노라.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것인가?

비록 푸성귀일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인가?

* 중의법: 수양산(백이숙제의 수양산, 수양대군), 채미(고사리를 캐먹음, 수양대군의 녹봉)

②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친화적인 소박한 삶을 즐기려는 시적 화자의 정서, ‘안빈낙도’를 보여주는 평시조이다. 조선 중기의 명필가 ‘한석봉’(한호, 1543~1605)의 작품이다.

짚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술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

아히야,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오거라.

* 박주산채(薄酒山菜): ‘맛이 변변하지 못한 술과 산나물’을 뜻하며, 자기가 내는 술과 안주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③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담아낸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황진이(조선 중종 때 기생, ?)의 시조이다. ‘월침삼경’, ‘추풍에 지는 잎’을 통해 임(화담 서경덕)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처지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내 언제 무신하여 님을 속엿관대

월침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잎 소리야 난들 어이 하리오.

④ 고려의 궁궐터를 돌아보고 왕조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무상감(맥수지탄)을 시적 화자의 정서로 담아낸 시조이다. 고려의 충신 ‘원천석’(1330년~?)의 작품이다. 초장의 ‘추초(秋草, 가을 풀)’, 중장의 ‘목적(牧笛, 목동의 피리소리)’, 종장의 ‘석양(夕陽)’의 소재는 작가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이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겼으니

석양에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겨워 하더라.

19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 공리이다. 그리고 그 결합이 ㉡ 자의적이라는 점 또한 널리 알려진 ㉢ 상식이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로 총칭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곤 한다.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① ㉠ 共理

② ㉡ 自意的

③ ㉢ 常識

④ ㉣ 緣關性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10쪽, 216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 공리이다.”에서 ‘공리’는,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를 뜻한다. 이때 ‘공리’의 한자는, ‘공공하다 공(公), 다스리다 리(理), ‘公理’로 쓴다. ‘共理’라

고 쓰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말이 소리와 그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로 성립된다고 할 때, 그 소리를 '기표'라고 하며,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기의'라고 하는데, 그 한자는 記標(기표, '기록하다 記, 표 標'), 記意(기의, '기록하다 記, 뜻 意')로 각각 쓴다.

② "그리고 그 결합이 ㉠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자의적'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이때 '자의적'의 한자는, '방자하다 자(恣), 뜻 의(意), 과녁 적(的)', '恣意的'으로 쓴다. '自意的'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다.

③ "또한 널리 알려진 ㉡ 상식이다."에서 '상식'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뜻한다. 이때 '상식'의 한자는 '항상 상(常), 알다 식(識)', '常識'으로 쓴다. 정답이다.

④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에서 '연관성'은,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을 뜻한다. 이때 '연관성'의 한자는, '잇닿다 연(聯), 빗장 관(關), 성품 성(性)', '聯關性'으로 쓴다. '緣關性'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다.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9 국가직 7급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미래예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에 지식을 제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단지성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지식정보시스템 등의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단지성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결정자들은 미래학자에게서 단순히 전망 보고나 브리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지도자 의사결정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미래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예측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③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에

측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집단지성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사실적 이해의 문제이다. 발문 "부합하지 않는 것은?"에 대한 접근법에 따라 '선택지'부터 보면서 선택지마다 중심 어구를 찾으면, '① 컴퓨터시스템 활용', '② 미래학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③ 미래예측능력 개선', '④ 집단지성시스템 이용'와 같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 부합 여부를 찾아야 하는 유형이다.

① 이 선택지는, 첫째 문단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대목과 둘째 문단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라는 대목에서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 선택지는, 셋째 문단 "미래학자와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지도자 의사결정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대목을 볼 때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미래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예측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이다.

③ 이 선택지는, 첫째 문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미래예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는 대목에서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이 선택지는, 둘째 문단 "예를 들어 집단지성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